



한동구(평택대)

## 1. 서론

이스라엘의 전역사(全歷史)는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摸索)하기 위하여 전력(全力)을 다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부분 민족주의적이었으며 때로는 강한 배타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민족주의적이며 배타적인 ‘생존의 길’ 만으로는 살아남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넘어 세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타자 지향적 섬김의 길,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한 섬김의 길에서 찾았다.

구약성서에는 세계를 위한 섬김의 가치를 표명한 몇몇 구절과 본문들이 있다. 포로후기에 다시 일으킬 나라를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www.kci.go.kr](http://www.kci.go.kr)

‘제사장의 왕국’(מַמְלֶכֶת כֹּהֲנִים)으로, 제2이사야서에서는 ‘야훼의 종’으로<sup>1)</sup> 그리고 이사야 61장 6절에서는 ‘야훼의 제사장’(כֹּהֲנֵי יְהוָה)이며 또한 ‘하나님의 봉사자’(מְשָׁרְתֵי אֱלֹהִים)라 불렸다. ‘제사장의 왕국’과 ‘야훼의 제사장’의 연관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주지되었으며, ‘야훼의 종’에 대한 문헌사적인 최근 연구(아래 참조)에서 이 두 개념은 포로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함께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문헌들은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의 섬김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히 자기 주권의 확장으로서의 섬김의 길<sup>2)</sup>에 대해 철저히 성찰하고 있다.

포로 후기의 다양한 문헌들은 이스라엘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을 힘의 확장을 통해 추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허구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어떤 역사적 계기로 인해 성찰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본문과 이들을 포함한 문맥을 함께 분석하여 신학적 의미를 규정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들 본문을 문헌사적으로 탐구하여, 이러한 신학 사상을 형성시킨 전승사적 자리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대적 연대를 종합하여 새로운 성찰을 가져오게 한 역사적 계기의 삶의 자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명과 섬김(=타자의 신학)을 연구하는 긴 탐구의 3번째 주제에 해당한다: “1. 타자/이웃의 발견 - 2. 타자/이방 민족에 대한 긍정적 평가 - 3. 타자/이방 민족에 대한 섬김의 사명과 정체성 형성 - 4. 타자의 신학.”

- 1) 사 42:1-4; 49:1-6; 50:4-9; 52:13-53:12.
- 2) 이러한 성찰은 이미 현대 철학자 레비나스가 서양철학사를 고찰하면서 그것이 자기중심적 철학사라는 점을 지적한 것과 같다. 따라서 그는 자기 주권의 확장의 존재론을 지향하고, 타자 지향적인 윤리학을 주장하였다. 참조 민대훈, 「바르트와 레비나스가 본 형상금령」 (서울: 도서출판 B&A, 2007), 107-164. 레비나스는 서양철학사는 대부분 존재론의 철학사로, 자아 중심적 철학이자 이기주의 철학, 즉 폭력적 철학이다. 참조 Emman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An Essay on Exteriority* Alphonso Lingis (trans.) (Dordrecht et al.: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43-44. 그래서 레비나스는 자아중심성의 철학이 아니라 타자와 타자성의 철학인 윤리학을 모색했다. 참조 에마뉘엘 레비나스,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 옮김) (서울: 민음사, 2003). 원제는 Emmanuel Lévinas, *De l'existence à l'existant*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Vrin, 2002), 43에서 재인용.

## 2. 출 19장과 24장의 문헌사적 분석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한 후에 광야를 거쳐, 마침내 시내산(혹은 광야)<sup>3)</sup>에 도착한다(출 19:1-2).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체결에 관하여 먼저 보도한다. 출애굽기 19-24장은 계약 체결(19장과 24장)과 그 사이에 놓여있는 십계명(출 20:1-17)과 계약 법전(출 20:22 - 23:19)으로 이루어져 있다.

### 1) 계약사상(출 19:3-8)

출애굽기 19-24장은 명백히 법률을 선포하는 계약 의식을 보도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계약과 더불어 야훼의 뜻을 선포할 것을 지시한다(출 19:3b, 6b).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의 요구를 선포하기에 앞서, 그가 베푸신 역사적 은혜 - 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 - 를 먼저 언급한다(출 19:4). 구속사의 언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의 소유의 백성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야훼께서 그의 법의지를 선포할 자격이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야훼께서 요구하신 것은 말씀 순종(שָׁמַע בְּקוֹלִי), 즉 계약 준수(אֲמַרְתֶּם אֲנִי שֹׁמְעִים)이다(출 19:5a). 여기에서 말씀(קוֹלִי 나의 말)은 ‘야훼의 뜻’, 혹은 ‘야훼의 의지’에 대한 총체적 표현이며, 계약은 이미 문서화된 법을 의미한다. 제2성전 공동체에서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율법과 계약

---

3) 출 19장은 문헌사적으로 3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먼저 ‘야훼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여/찾아오셔서 백성들과 만나는 사건을 보도한다(출 19:10-11, 14-15, 20a). 에스겔서에서 야훼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과 오경에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찾아오시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포로기 전 환기의 신학적 현상을 나타낸다. 둘째, 이어 계약 사상을 통하여 십계명과 계약 법전을 중재한다(출 19:3-8). 이는 과거 일회적인 구원의 역사를 율법을 통하여 일상에서 반복적인 구원 사건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역사와 법률의 결합은 포로후기 제2성전 공동체가 추구한 신학적 목표이다. 셋째, 이러한 사건들과는 달리 야훼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경계(출 19:12)하는 상황들을 보도한다. 이러한 경계는 모세의 중재적 지위를 대비하기 위한 이며(출 19:9, 12-13, 16-25).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תורה 버리트)은 상호 대체될 수 있는 동일한 개념이 되었다. 따라서 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문서화된 법령으로서의) 계약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계약 준수의 요구 이후에도 역사적 은혜를 언급한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소유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온 세계가 자신의 소유(출 19:5b), 즉 야훼가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점에 근거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할 말씀들-십계명과 계약 법전-을 전했다(출 19:6b, 7b). 그리고 백성들은 일제히 “야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모세가 백성들의 응답을 야훼께 보고함으로 계약 체결은 종결된다(출 19:8).

## 2)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명과 정체성(출 19:6a)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왕국’으로 명명되고 있다(출 19:6a; 참조 사 4:3; 61:6). 이는 또 다른 계약 체결의 목적처럼 보이게 한다. 원래 계약 체결의 목적은 야훼의 법을 선포하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사명과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제사장의 왕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 동안 연구사에서는 포로 후기 페르시아 시대의 성전 지배 체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했다.<sup>4)</sup> 이러한 이해는 ‘제사장의 왕국’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제사장의 왕국’은 계약 양식의 두 번째 내용(“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다”)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사장의 왕국’ 역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할 목적으로 사용된 표현으로 이해

4) W. Oswald, *Israel am Gottesberg. Eine Untersuchung zur Literaturgeschichte der vorderen Sinaiperikope Ex 19-24 und deren historischem Hintergrund* (OBO 15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7), 32.

해야 한다. 이는 야훼의 이스라엘 선택(출 19:5b)은 이스라엘의 지위를 세계의 다른 민족들에 비하여 우위에 두려는 데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세계를 섬겨야 하는 귀중한 사명이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야훼의 제사장으로 열방을 섬기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 용어로부터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추론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암시한다.

### 3) 계약 체결 의식(출 24:3-8)

출애굽기 24장 3-8절에서도 계약 체결을 보도한다. 여기에서는 두 차례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첫째, 말씀 선포와 준수를 결의하는 계약 체결 의식이다(출 24:3-4a). 먼저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선포하고(출 24:3a), 이에 백성이 한 목소리로 “야훼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한다(출 24:3b). 그리고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함(출 24:4a)으로 계약 체결 의식은 종결된다. 이 의식은 대체로 출애굽기 19장 3-8절에서 재수용했다. 출애굽기 24장 3-4a 절의 계약 체결 의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모세의 말씀의 선포(출 24:3a)

백성의 말씀 준행의 응답(출 24:3b)

모세의 말씀 기록(출 24:4a)

둘째, 제사 의식을 통해 계약 체결 의식을 다시 한 번 거행한다(출 24:4aβ-8). 모세는 제단을 구축하고(출 24:4aβγ),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운 다음(출 24:4b), 각종 제사들을 드렸다(출 24:5). 이 제사 가운데 모세는 피-의식을 거행한다. 피-의식은 두 차례 나눠 드려진다. 첫째는 피의 절반을 취하여, 제단에 뿌린다(출 24:6). 이 의식은 모든 부정을 정화하는 정결 의식이다. 그 사이에 계약의 책의

낭독(출 24:7a)과 백성의 응답(출 24:7b)이 삽입되어, 피-의식의 흐름이 차단되었다. 이어 또 한 차례의 피-의식을 거행한다. 모세는 피의 나머지 절반을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고(출 24:8a), “보라! 이는 야훼께서 너희와 맺은 계약의 피다”라고 선언했다(출 24:8b).

- 제단 구축(출 24:4aβγb)
- 각종 제사(출 24:5)
- 피-의식(1): 제단에 뿌림(출 24:6)
- 계약의 책 낭독(출 24:7a)
- 백성의 응답(출 24:7b)
- 피-의식(2): 백성에게 뿌림(출 24:8a)

출애굽기 24장 3-8절에서의 피-의식은 (대)제사장의 위임식(출 29:19-26; 레 8:22-29)에서의 피-의식과 매우 유사하다. (대)제사장의 피-의식에서는 피의 일부를 (대)제사장의 신체의 일부(귓부리,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린다. 출애굽기 24장 3-8절에서 야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유사한 피-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왕국이 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 계약 체결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직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데 있다.

#### 4) ‘제사장의 왕국’의 의미와 삶의 자리

현 본문은 ‘제사장의 왕국’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한다. 다만 출애굽기 19장 5-6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여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였음을 보도한다. 그러나 사명의 내용에 대해 특별한 설명은 없으나, 야훼의 말씀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왕국’이라 명한 것은 그들의 사명이 ‘말씀의 온전한 준수’ 및 그 이상의 과제일 것이다.

한편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가 부여됐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한다. 첫 번째 계약 체결 의식(출 24:3-4)에서는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한다(출 24:4aa).

두 번째 계약 체결 의식(출 24:4-8)에서는 말씀 준수를 위한 동일한 의식을 반복하면서, 계약의 백성 모두에게 대제사장에게 거행하는 피의식을 동일하게 거행한다. 이는 제사장의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의 준수 및 그것의 세계적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스라엘이 세계를 향해 특별한 사명을 지닌다는 것은 세계 열방의 삶에 직접 개입하여,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모범적 가치를 형성, 실천, 보존 및 확산하는 일이다. 세계의 중심은 물리적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바른 삶의 원리인 야훼의 말씀에서(사 2:2-5) 그리고 세계를 향한 섬김(과 축복의 중재)에서 나온다.

전승사적으로 ‘제사장의 왕국 사상’이 지니는 세계사적 안목은 포로기 전환기 혹은 포로 후기의 계약 사상을 전제하고, 나아가 계약 양식의 두 번째 내용을 어떤 역사적 동기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sup>5)</sup>

---

5) 그리고 이사야서의 야훼의 종의 노래에서 보여주는 섬김의 내용과 방법을 출 19-24장에서 침묵한 것은 이사야서의 것을 이미 전제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 3. 야훼의 종의 노래

#### 1) 문제의 제기

제2이사야(사 40-55장)의 중심적인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제2이사야에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천명한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이다(사 54:4-5).

그러나 제2이사야에 포함되어 있는 야훼의 종의 노래(사 42:1-4; 49:1-6; 50:4-9; 52:13- 53:12)에서는 세계를 향한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하여 노래한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능력의 선포를 넘어, 이스라엘의 과제와 그것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제2이사야의 신학의 방향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세계를 향한 이스라엘의 사명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규명’으로 전환하고 있다.

#### 2) 야훼의 종의 노래의 구조

스텍(O. H. Steck)은 야훼의 종의 노래에 드러나는 일정한 양식을 추적했다: 사명의 부여, 부여된 사명의 실행 그리고 실행된 사명의 성공이 그것이다.<sup>6)</sup>

##### (1) 사명의 부여

야훼의 종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과정은 대체로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부여된다: 선택 - 무장 - 사명부여.

첫째, 종의 선택이다. 야훼의 종의 제1노래(이하는 제1노래)에서는

---

6) O. H. Steck, "Aspekte des Gottesknechts in Deuterocesaja 'Ebed=Jahwe=Liedern'", ZAW 96 (1984), 372-390. O. H. Steck, "Aspekte des Gottesknechts in Jes 52, 13 - 53, 12", ZAW 97 (1985), 36-58.

야훼께서 그의 종을 선택했음을 언급한다: “보라 나의 종을! 내가 그를 (군계) 붙들 것이다. (그는) 내가 선택한 자이며, 내 영혼이 기뻐하는 자이다”(사 42:1a). 야훼의 선택 행위는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sup>7)</sup> 제2노래에서는 선택 시점을 표현하여 특별한 선택임을 강조한다: ‘복중에서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사 49:1b).

둘째, 야훼께서는 선택한 종을 특별하게 무장시킨다. 제1노래에서는 야훼의 종을 영으로 무장시켜(사 42:1ba) 직무의 권위를 부여하여 ‘신적 기원성’을 나타내었다. 제2노래에서는 야훼의 종을 용사로 무장시켰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는 나를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사 49:2). 이 용사는 ‘말씀’으로 야훼의 의지를 관철시킨다.<sup>8)</sup> 말씀의 무장은 제3노래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주 야훼께서 내게 학자들의 혀를 주어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셨다. 또 아침마다 깨우치시며, 또 나의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이는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여셨기 때문이다”(사 50:4-5a). 제4노래에서는 용사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고난으로 무장시켰다(사 53:2-3).

야훼께서는 그의 종에게 영, 말씀과 고난으로 특별히 무장시켰다. 이는 통일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신적 기원성을 부여하는 영의 부여, 규범과 가치의 상징인 말씀의 무장 그리고 섬김과 자기희생의 상징인 고난으로 무장시켰다.

7) H.-J. Hermisson, *Studien zu Prophetie und Weisheit (Gesammelte Aufsätze)*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23; Tübingen: Mohr Siebeck, 1998), 207: ‘야훼께서 (그의 종을) 선택하다’(בחר) 사 41:8-9; 42:1; 43:10). ‘선택’ 대신에 (야훼께서) ‘부르시다’를 통해 선택을 나타내기도 했다(אָרָא 사 41:9; 48:12; 49:1). ‘선택’과 함께 (야훼께서 그의 종을 군계) ‘붙들다’를 사용하여, 선택의 행위를 강조하기도 했다(בָּרַךְ 사 41:10; 42:1). 특별한 선택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 시점을 표현한다: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צָרַי מִבֶּטֶן) 사 44:2, 24; 49:5). 단순히 ‘종으로 조성하였다’고 표현하기도 했다(사 44:21 אֵתָה לִי צָרַי מִבֶּטֶן; 49:5 לוֹ עֲבָדָה צָרַי מִבֶּטֶן לְעַבְדִּי עֲבָדָה).

8) H.-J. Hermisson, *Studien zu Prophetie und Weisheit*, 195.

셋째, 이어 본격적으로 종에게 사명을 부여한다. 여기에서 이방민족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명이 제시되었다. 물론 자기민족을 향한 사명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이방민족들에게 법을 베풀 것이다(사 42:1bβ לְאֻמִּים)

그가 법을 세상에 세우기까지(사 42:4aβ יְצַדִּיק)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사 49:6ba מִי אֲנִי אֲלֹהִים)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사 49:6bβ יְצַדִּיק וְיַגִּיד עַד-קֵצֶה)

제1노래에서는 야훼의 종을, 법(טֹרָה)을 열방(אֻמִּים)에게 그리고 온 세계(יְצַדִּיק)를 향해 베풀 자(사 42:1bβ)로 소개한다. 이스라엘은 홀로 있지 않고 세계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살아간다. 이스라엘은 포로기라는 국가 파멸의 비운을 겪고 난 후, 자존을 지키고 나를 번영시키는 길은 세계 여러 민족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포로기 전환기와 포로 후기에는 이러한 정신적 성찰이 더욱 확대되어 시대정신이 되었다. 다시 말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아예 ‘세계를 섬기는 나라’라고 규정했다.

야훼의 종이 전하는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하지는 않으나, 그것을 온 세계가 배워야 할 야훼의 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세계 열방의 구원이 결정된다. 야훼의 종인 이스라엘의 사명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반영된 법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이사야 2장 2-4절(=미 4:1-4)에서는 영원한 평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제2노래에서도 야훼의 종을 열방에게 또 ‘세계의 끝까지 빛(אֵשׁ)과 구원(יְצַדִּיק)을 베풀 자’로 소개한다. 빛은 구약성서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다양한 가치(예를 들어 생명, 삶의 활기, 진리, 정의 등)를 상징한다. 야훼의 종은 야훼의 법을 일깨워 사람들에게 참인생의 길을 제시하

며, 삶의 바른 원리를 제시한다. 이것은 세계의 사람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된다.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된다(참조 사 49:6; 51:4).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야훼의 종의 형태로 이방 민족을 향한 사명을 부여받고,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 (2) 부여된 사명의 실행

사명의 실행에 대하여는 이사야 42장 2-3a절; (49:4a); 50장 5b-6절; 53장 7-10a, 11b, 12b절에서 전한다. 여기에서는 야훼의 종의 섬김의 방법에 대하여 철저히 성찰한다. 야훼의 종은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긴다. 이는 세상의 통치자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첫째, 섬기는 자는 종래의 통치자의 모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배려하고 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의 법을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한다.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외친다. 만약 그의 법 앞에 불복종할 경우 무서운 보복이 기다린다(참조 전 9:17).<sup>9)</sup> 야훼의 종은 “소리치지도 높이지도 않을 것이며,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위해 어떠한 선전(Propaganda)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사명 실행에 세계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는 세계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 가운데 활동한다. 이것은 신앙의 신비에 속하는 것들이다.

야훼의 종의 사명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 이러한 사상은 왕조시대 예언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장들이다. 아모스 4장 1절에서는 “... ..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자들, ...”을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이라 비난했다. 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은 왕조시대뿐만 아니라,

9) G. Werner, *Deuterocesaja* (Calwer Bibelkommentare; Stuttgart: Calwer verl., 1990), 136-138.

모든 시대에 통용되었던 중요한 관심사다.

‘꺾여진 갈대’는 이사야 56장 8절에서는 ‘압제 당하는 자’로 이해된다. 새로운 시대에 야훼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사명을 수행하는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희미해진 심지를 끄지 않는다”(תִּשְׂרֹף אֶת־הַנֶּחֱמָה פ쉬타 카하)는 말은 (연약한 존재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짓밟지 않음을 의미한다(삼하 14:7; 21:17; 참조 사 43:17). 야훼의 종의 이미지는 이사야 61장 1-3절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소명을 받아 사회적 약자를 돕고 배려하는 것과 동일한 이미지이다.

둘째, 야훼의 종은 자기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얻게 한다. 이러한 모습은 골라들의 주장, 즉 포로기의 고난을 토대로 변화된 시대의 주권을 주장하는 입장과는 다르다. 야훼의 종은 자신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 치유를 얻게 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이는 전형적인 대속 사상으로 해석한 것이다. 종래 (혹은 초기) 단순한 보상 (혹은 배상)을 목적하는 속건 제사에서 대속적 의미의 속건 제사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이다.

### (3) 실행된 사명의 성공 보장

야훼께서는 그의 종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그의 성공을 직접 보장한다(사 42:3b-4; 49:3, 4b; 49:5b, 6bβ; 50:7-9; 53:10αγ-11aαβ, 12a). 여기에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스스로 낙담하거나 혹은 외부의 장애가 있을지라도 꺾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한다. 그래서 야훼의 종은 법을 세상에 온전히 세우며, 또 그것으로 인해 온 세계가 그 법을 앙망한다(사 42:3b-4). 야훼께서 그의 사명자를 ‘나의 종’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야훼께서는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사 49:3). 그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사 49:6bβ), 그를 지켜주며(사 49:5bβ; 사 50:7-9), 또한 존귀한 자로 인정한다(사 49:5ba). 궁극적으

로 그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사 53:11a<sup>δ</sup>).

### 3) 야훼의 종의 노래의 전승사적 고찰과 삶의 자리

제2이사야의 예언은 다가오는 위대한 사건을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고 있다. 어둠에 살던 백성이 새 날의 동이 터오는 것을 기대와 흥분으로 보게 된다고 예언한다. 제2이사야 메시지의 핵심은 애굽에서의 탈출, 갈대 바다에서의 구원, 광야의 행진, 약속된 땅으로의 개선해 가는 여행이다. 제2이사야서(사 40-5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능력을 선포하는 메시지와 함께 우상 금령을 규정하는 메시지들<sup>10)</sup>과 고레스 말씀들<sup>11)</sup>이 포함되어 있다. 양자는 모두 야훼 하나님을 창조주로, 역사의 통치자로 고백한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의 유일성과 전능성을 나타낸다.

야훼의 종의 노래는 분명히 제2이사야(사 40-55장)의 메시지와 그 배경을 넘어선다. 세계를 향한 이스라엘의 사명을 규정하는 야훼의 종의 노래는 전승사적으로 제2이사야 우상 금령을 규정하는 메시지들과 고레스 말씀들을 전제한다.<sup>12)</sup> 그리고 야훼의 종의 노래들이 세계를 향한 이스라엘의 사명을 노래하면서, 섬김의 길을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야 60-62장의 메시지와 신학의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본문들은 유사하거나 혹은 동일한 시기에 형성된 본문이다.

야훼의 종의 노래는 세계를 향한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실현 방법을 철저히 성찰한다. 그는 약소국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거대한 힘을 통해 세계의 구원을 이룩하려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꿈을 꾸고 있는 한, 그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성을 똑바로 직

10) 사 40:18-20; 41:6-7, 21-24b, 29b; 42:8, 17; 44:9-20; 45:15-17, 20b, 24-25; 46:1-2, 5-7, 8, 12; 48:5, 11.

11) 사 41:1-5; 41:21-29; 42:5-9; 44:24-28; 45:1-7; 45:9-13; 46:8-11; 48:12-15.

12) R. G. Kratz, *Kyros im Deuteriosaja-Buch* (Forschungen zum Alten Tetzament 1; Tübingen: Mohr Siebeck, 1991).

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꿈꾸었다: 야훼의 종의 꿈. 그 길은 이방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정의의 법에 대한 꿈이다. 이는 힘의 논리, 지배의 논리, 정복의 (망령된) 철학의 극복을 통해서만이 실현 가능하다. 새로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을 ‘힘’이 아니라 ‘약함’으로 역설적 해석을 내린다. 이때에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며, 세계는 그들을 양망한다.

바벨론의 패망과 함께, 비록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놓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새로운 독립을 맞게 되었고, 이제 국가 재건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만이 짓밟을 치른 자들이며, 따라서 국가 재건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야훼의 종의 노래는 포로에서 귀향한 자들(גֵּרֵי בְּלָדֵי כַּנְזַי קְלָרֵי הַיְּבֵדִים)이 추구하는 정치적 현실과도 대립된다. 야훼의 종의 노래에서는 포로기의 고난을 새 시대를 위한 삶의 원리로 해석한다. 지난날의 고난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과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위한 섬김과 자기희생의 표본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제2성전공동체의 제2세대에서야 비로소 가능하다.

## 4. 이사야 66장의 분석

### 1) 제3이사야서의 문학적 특징

이사야서는 뉘(B. Duhm) 이래로 3권 책으로 이해되었다.<sup>13)</sup>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사야 56-66장은 제3이사야에 속하며, 느헤미야 시대(기원 445년) 바로 직전에 형성된 통일된 본문으로 간주된다.<sup>14)</sup> 그러나

13) B. Duhm, *Das Buch Jesaja* (HKAT III/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2).

14) 제3이사야가 통일적이라는 견해는 20세기 중반까지 유지되었다. 다만 형성 연대를 엘리거(K. Elliger)는 기원전 520년경으로 그리고 케슬러(W. Kessler)는 뉘와 엘리거 사이로 유지했다. 참조 K. Elliger, *Die Einheit des Tritojesaja* (BWANT 4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28). K. Elliger, "Der Prophet Tritojesaja", *ZAW* 49 (1931), 112-141. W. Kessler, "Zur Auslegung von Jesaja 56-66".

제3이사야서의 통일성은 키텔(R. Kettel) 이후 줄곧 의심되었다. 그는 다양한 단편들이 한 편집자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단편가설은 볼츠, 최근에는 세키네(S. Sekine), 쾨넨(K. Koenen)에 의해 주장되었다. 세케네는 7개의 단편을 한 편집자가 종합했다고 보았다.<sup>15)</sup>

최근에는 제3이사야서의 형성에 대해 단계적 편집설(stufenweisen Redaktionen)과 점진적 성장설(Fortschreibungen) 등의 견해가 제시되었다.<sup>16)</sup> 베스트만(C. Westermann)은 제3이사야서가 60-62장의 기본층에서 출발하여 총 7단계의 편집과정을 거쳐 현재의 본문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sup>17)</sup> 그 후 다양한 형태로 수정된 단계적 편집설을 주장했다: 헨슨(P. D. Hanson),<sup>18)</sup> 스텝(O.-H. Steck)<sup>19)</sup> 및 베르게스(U. Berges)<sup>20)</sup> 등.

---

ThLZ 81 (1956), 335-338.

- 15) S. Sekine, *Die Tritojesajanische Sammlung(Jes 56-66) redaktionsgeschichtlich untersucht* (BZAW 175; Berlin/NewYork: de Gruyter, 1989). K. Koenen, *Ethik und Eschatologie im Tritojesajabuch. Eine literarkritische und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 (WMANT 6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0).
- 16) R. G. Kratz, "Tritojesaja", *TRE* 34 (2002), 125-127.
- 17) C. 베스트만, 「이사야(3)」(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 18) P. D. 헨슨, 「목시문학의 기원」(이무용/김지은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19) O. H. Steck, *Studien zu Tritojesaja* (BZAW 203; Berlin/New York: de Gruyter, 1991). 스텝은 사 1-34장, 36-39장 및 40-55장은 독자적인 형성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여 포로 후기의 초기에 제1이사야서(사 1-11장, 13-34장 및 36-39장)가 편집된 것으로 간주했다. 이와는 별개로 여러 단계의 편집 과정을 거쳐 40-55장의 복합체가 형성되었고, 그 후 한 편집 과정에서 사 60-62장이 여기에 결합되었다. 그는 사 60-62장(사 60:1-11, 13-16; 61; 62:1-7)은 제2이사야서에 점진적 성장을 통해 결합되었다고 보았다. 이 문서는 성전을 전제하나, 느헤미아의 성벽 보수는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원전 515년에서 445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는 "알렉산더 대왕의 사망(기원전 324년) 이후에 사 1-39장과 사 60-62장이 포함된 사 40-55장이 사 35장을 통하여 결합된 대이사야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 20) U. Berges, *Das Buch Jesaja* (HBS 16; Freiburg im Breisgau: Verlag Herder, 1998). U. Berges, *Jesaja. Der Prophet und das Buch* (Biblische Gestalt 22;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0).

## 2) 사 60-62장의 문학적 특성

이사야 60-62장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첫째는 이사야 60-62장을 제2이사야에 속하는 것으로, 이사야 56-59장과 63-66장만이 제3이사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한다.<sup>21)</sup> 제2이사야와 이사야 60-62장에서는 구원에 대하여 많이 선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하므로 심판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활동과 사건의 중심에 시온이 놓여 있다. 이와는 달리, 이사야 60-62장은 제2이사야를 전제하는 본문으로 간주된다.<sup>22)</sup> 이사야 60-62장에서는 제2이사야의 관점을 계승하면서, ‘시온이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sup>23)</sup> 헨슨도 “이사야 60-62장에 제2이사야의 말씀

21) J. Ch. Gertz(ed.), *Grundinformation Altes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9), 338-339. 참조 사 57:14-19; 60-62장; 65:16b-25; 66:7-14a도 제2이사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2) 참조 P. D. 헨슨, 「묵시문학의 기원」, 63, 사 60-62장에서 제2이사야를 수용한 부분들:

주제	사 60-62장	제 2이사야
용서의 약속	60:10b, 15	40:1-2; 44:22; 54:7-8
이스라엘의 회복	62:10-12	40:8-11; 52:7-10
열국에서 귀향	60:4, 9	43:5-7; 49:12, 18, 22
재물이 열국에서 물려옴	60:5-7, 16	45:14
열왕들의 시온 예배의 참여	60:10-11	49:23
예루살렘의 영광	60:13, 17	54:11-12
회복된 도시의 안전	60:12, 14; 62:8	41:11-13; 51:21-23; 54:14-17
이스라엘의 번성과 충만	60:22	49:12-21; 54:16-23
야훼의 종의 사명	61:1-3	42:1-4; 49:1-6
영의 부음	61:1a	42:1b
기쁜 소식을 전함	61:1	40:9; 52:7
야훼의 영원한 계약	61:8	54:10; 55:3
열국의 빛	60:3	49:6
굴욕의 종결	62:4-5	45:17; 54:4-8
야훼와 시온과의 결혼표상	62:4-5	54:1-6
상급과 보응	62:11b	40:10b
야훼의 영광을 위하여	60:16, 21	48:11; 49:26b

23) 그 근거로 바벨론은 멸망하였고, 사람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 왔으며, 이미 성전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림에도 많은 궁궁과 비참함과 절망이 지배하고 있다. 참조 R. 스펀트, 「후기 예언서 연구」(원진희 옮김)(서울: 한우리, 2003), 188. 이러한 견해를 크라츠에게서도 볼 수 있다. 참조 R. G. Kratz, “Tritojesaja,” *TRE*

이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용어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에서 “... .. 제2이사야를 넘어서는 계획으로 구성된 주제들이 발견된다”고 보았다. 특별히 세계와 열방에 대한 열린 시각이 덧붙여져 나타난다(참조 사 60:3-4, 9, 12, 15-16, 24; 61:9).<sup>24)</sup> 경제적 빈곤의 상황 속에서 옛 시대의 구원의 약속을 새롭게 해석했다.

### 3) 사 61장의 내용과 구조

이사야 61장 1-3절에서는 1인칭(나)으로 표현된 야훼의 종에게 예언자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 그의 사명은 이중의 의식-영의 부음과 기름의 부음-을 통해 부여된다.<sup>25)</sup> 그의 직무는 이사야 61장 1b절에서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향하고 있다: 가난한 자(עניים 아노임), 마음이 상한 자(בשריב וצערניב 니쉬버레-렙), 몸이 저당 잡힌 자(גוף מושבט 쉬부임 더로르)<sup>26)</sup> 및 갇힌 자(שׁוֹבְרֵי אֵז 프카흐-코아흐). 사회적 약자들은 ‘슬픈 자’(עֲבֵרִים 아베림; 사 61:2-3a)로 총칭되는데, 야훼의 종은 은혜의 해에 이들을 위로해야 한다: “그 재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며,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그리고 근심하는 영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어야 한다.” 이 위로는 ‘슬픈 자’들의 운명에 대 전환을 가져오게 한다. 그 결과 이들은 야훼께서 친히 심은 ‘의의 나무’, 즉 정의 공동체가 되어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사야 61장 4-9절에서는 야훼의 종이 베풀어야 할 야훼 하나님의

34(2002), 125-127.

24) 헨슨, 『목시문학의 기원』, 62-63.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체의 변화에 주목한다: “산문체로는 가장 오래된 양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그 주제는 제2이사야의 주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옛 문체가 파괴된 부분(예를 들어 사 60:17-21; 61:4-6)에서는 제3이사야의 독특한 주제로 발전된다. 운율과 문체상으로는 사 60-62장은 제2이사야와 제3이사야 사이에 놓여있다.” 헨슨은 제3이사야의 새로운 요소를 목시문학의 출현으로 해석했다.

25) 모든 사명자들이 항상 이중의 의식을 통하여 사명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다윗의 경우 기름부음이 있을 후에 영의 부음이 동반되었다.

26) 번역에 대하여, 김희권, “이사야 61장 1-11절에 나타난 선교신학: 시온과 열방의 관계에 대한 주석적 고찰”, 『선교와신학』 제13집 (2004년 6월), 141-170을 참조하라.

구원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그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연결된다. 먼저 황폐한 도시들의 재건을 상세히 언급한다(사 61:4). 그리고 재건의 과정에 명예도 회복된다. 다시 말하여 지난날의 손실이 갑절이나 보상되어지고 수치가 영원한 기쁨으로 변한다(사 61:7). 재건의 과정에서 이방 민족과의 관계 양식이 역전되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며(사 61:5), 이방 민족의 재물과 영예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되며(사 61:6b), 종국에는 못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야훼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한다(사 61:9). 이는 정의로운 야훼(사 61:8ab<sup>a</sup>)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결과이다(사 61:8b<sup>β</sup>).

여기에 사명을 실행하는 야훼의 종을 ‘야훼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사 61:6a)라 새롭게 명명한다. 이러한 사명의 천명에서 이스라엘의 사명과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한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야훼의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으로 단락을 끝맺고 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1절에서는 일종의 부록의 형식으로 이사야 61장 3절의 ‘의 나무’, 즉 ‘정의의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 온 세계의 민족들이 볼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찬양한다.

#### 예언자적 사명부여(사 61:1-3)

이중의 의식: 영의 부음의식(사 61:1a)과 기름의 부음의식(사 61:1b<sup>a</sup>)

사명선언: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함(사 61: 1b)

사명실행: 사회적 약자들에게 운명의 대전환(사 61:2-3a)

사명목표: 정의의 공동체 형성과 야훼의 영광(사 61:3b)

#### 야훼의 제사장이 베풀어 할 구원(사 61:4-9)

재건(사 61:4)

명예회복(사 61:7)

야훼의 정의의 실현과 영원한 언약을 세움(사 61:8)

상황변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변화

이방인의 이스라엘 섬김(사 61:5)

이방인의 재물과 영예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옴(사 61:6b)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야훼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사 61:9)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사 61:6a)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사 61:10-11)

야훼의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사(사 61:10)

‘정의의 공동체’의 성장(사 61:11)

#### 4) 세계에 향한 이스라엘의 사명과 야훼의 제사장(사 61:6)의 삶의 자리

‘거룩한 백성’을 이사야 61장 6절에서는 ‘야훼의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의 봉사자’라 불렀다. 이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표현한 또 다른 표현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사야 61장 1-3절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야훼의 종’을 제2 이사야서의 야훼의 종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환원할 수 있다면, 이사야 61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사명과 정체성을 읽을 수 있다. 이사야 61장 1-3절에서의 야훼의 종의 사명은 사회적 약자들(억눌린 자, 마음이 찢긴 자, 포로 그리고 옥에 갇힌 자)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분명히 이 과제는 국내의 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sup>27)</sup> 특별히 재건의 과제는 더욱 분명하다(사 61:4). 그럼에도 이를 국제적 지평에서도 통용되는 이스라엘의 사명으로 읽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세계의 열방을 위한 사명이라고 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열방의 역사 현장에 직접 개입하여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참조 창 12:3), 모범적인 가치 표준(사 61:1-3, 8a-ba, 10a<sup>δ</sup>, 11ba)을

27) 느헤미야 개혁은 ‘무거운 세금과 불순한 기후로 말미암아(느 5:1-5, 15)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비참하고 궁핍한 생활’에 기인한다. 탐욕스런 귀족들과 관리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곤 했다(느 5:1-13).

‘모든 나라 앞에’(사 61:9, 11b)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sup>28)</sup>

이스라엘 민족은 정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온 세계의 민족들이 이를 삶의 표준으로 삼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를 위한 야훼의 제사장이며 야훼의 봉사자이다. 이스라엘은 가치 표준의 형성자이며 전파자로서, 세계 열방을 섬기는 민족이며 나라이다. 이제 거룩한 백성은 이방과 구별되는 한 표식을 넘어 세계를 섬기는 표식이 되었다.

전승사적으로, 제2성전 공동체의 삶이 제2이사야의 비전과는 달리, 가난과 작은 일들(?)의 연속이다. 따라서 제3이사야에서는 정의의 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변화는 제2성전 공동체의 제2세대에 서야 비로소 가능하며, 다른 전승들에서도 동일하게 감지된다.

사유와 성찰의 전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계기를 ‘메시아 소동과 페르시아 당국의 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포로 후기에 유다 공동체에서는 다윗 가문에서 나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상당히 널리 퍼져있었다.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이라는 다윗 가문의 유다 총독을 전제했다.<sup>29)</sup> 그래서 페르시아 당국은 기원전 486년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제거했다.<sup>30)</sup>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함께, 메시아 사상의 내용과 형식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정치적 메시아의 대망으로부터 메시아에 의해 실현될 새 시대와 사회, 즉 메시아적 가치의 대망으로 변화되었다.<sup>31)</sup>

28) 김회권은 “이사야 61장 1-11절에 나타난 선교신학”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은 열방들을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유인하고 초청하는 현존 전도 공동체다”(169)라고 주장함으로써, 선교의 목적과 방법을 여전히 자기 주권의 확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사 61장을 포함한 후기 구약성서의 문헌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가치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선교 개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29) 학 2:20-23, 속 3:8, 6:9-15.

30) J. Bright, *A History of Israel* (London: SCM Press, <sup>3</sup>1981), 386-388. S. Herrmann, *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6), 373.

31) 참조 한동규, “음식규정과 평화사상”, 『창세기의 신앙과 신학』(한국구약학총서 014; 용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46-68, 특히 63-67.

위 세 구절의 형성도 이러한 유다 사회의 정치적 변화와 함께 가져온 사회적 변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 5. 결론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출애굽기 19장의 '제사장의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구속사를 문서화된 말씀 가운데에서 현재화하려는 제2성전공동체, 특별히 제1세대의 전승을 전제한다. 출애굽기 19-24장의 제사장의 왕국 사상에서는 말씀의 모범적 실천과 모범보이기를 통한 세계적 확산을 추구한다. 출애굽기 19-24장의 모범보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 즉 사회적 약자와 경제 정의의 터전에서 구현하기를 강조하는 이사야 60-62장의 편집층과 맥을 같이 한다.

제2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비전과 함께 강한 국가를 열망했다. 그러나 야훼의 종의 노래에서는 세계를 향한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실현 방법에 대하여 철저히 성찰한다. 따라서 전승사적으로는 야훼의 권능과 세계적 통치에 근거한 전승들(우상 금령들과 고레스 말씀들)을 전제한다. 특별히 야훼의 종의 노래에서는 골라들의 국가 재건에 대한 권리 주장을 거부한다. 오히려 포로기의 고난을 새 시대의 삶의 원리로 삼아 세계 열방의 섬김과 자기희생의 표본으로 승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제2성전공동체의 제2세대에서 가능하다.

이사야 61장에서 야훼의 종의 사명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정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생존의 길을 힘의 확장과 힘의 과시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의 실천에서 찾아야 하며, 그리고 이 가치를 온 세계 열방들에게 삶의 표준으로 삼게 해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 야훼의 말씀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출애굽기 19-24장의 목표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 할 때, 위 세 본문은 각기 다른 저자(혹은 편집자)에 의해 형성되었으나, 모두 이스라엘의 생존의 길을 세계 열방과의 관계의 빛에서 바로 보고 있으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의의를 세계 열방을 섬기는 길에서 찾고 있으며,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세계 열방을 섬기는 '야훼의 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왕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제2성전 공동체의 제2세대, 역사적으로는 다윗 가문의 메시아 대망을 좌절시킨 페르시아의 스투바벨의 제거 사건(기원전 486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 정치-사회적 변화를 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 메시아 운동이 이념적 메시아 사상운동으로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의 사명과 정체성을 세계 열방을 섬기는 민족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게 했다.

## 6. 참고문헌

- C. 베스터만, 「이사야(3)」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 P. D. 헨슨, 「묵시문학의 기원」 (이무용/김지은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R. 스펜트, 「후기 예언서 연구」 (원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3).
- 김희권, “이사야 61장 1-11절에 나타난 선교신학: 시온과 열방의 관계에 대한 주석적 고찰”, 「선교와신학」 제 13집 (2004년 6월), 141-170.
- 민대훈, 「바르트와 레비나스가 본 형상금령」 (서울: 도서출판 B&A, 2007).
- 에마뉘엘 레비나스,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 옮김) (서울: 민

- 음사, 2003). 원제는 Emmanuel Lévinas, *De l'existence à l'existant*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Vrin, 2002).
- 한동구, “음식규정과 평화사상”, 「창세기의 신앙과 신학」 (한국구약학 총서 014; 용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46-68.
- Berges, U., *Das Buch Jesaja*, (HBS 16; Freiburg im Breisgau: Verlag Herder, 1998).
- \_\_\_\_\_, *Jesaja. Der Prophet und das Buch*, (Biblische Gestalt 22;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0).
- Bright, J., *A History of Israel*, (London: SCM Press, 1981).
- Duhm, B., *Das Buch Jesaja*, (HKAT III/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2).
- Elliger, K., “Der Prophet Tritojesaja”, *ZAW* 49 (1931), 112-141.
- \_\_\_\_\_, *Die Einheit des Tritojesaja*, (BWANT 4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28).
- Gertz, J. Ch.(ed.), *Grundinformation Altes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9), 338-339.
- Hermisson, H.-J., *Studien zu Prophetie und Weisheit* (Gesammelte Aufsätze),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23; Tübingen: Mohr Siebeck, 1998).
- Herrmann, S., *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6).
- Kessler, W., “Zur Auslegung von Jesaja 56-66”, *ThLZ* 81 (1956), 335-338.
- Koenen, K., *Ethik und Eschatologie im Tritojesajabuch. Eine literarkritische und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 (WMANT 6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0).

- Kratz, R. G., "Tritojesaja", *TRE* 34 (2002), 125-127.
- \_\_\_\_\_, *Kyros im Deuterojesaja-Buch*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1; Tübingen: Mohr Siebeck, 1991).
- Levinas, Emmanuel, *Totality and Infinity, An Essay on Exteriority* Alphonso Lingis (trans.) (Dordrecht et al.: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 Oswald, W., *Israel am Gottesberg. Eine Untersuchung zur Literaturgeschichte der vorderen Sinaiperikope Ex 19-24 und deren historischem Hintergrund* (OBO 15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7).
- Sekine, S., *Die Tritojesajanische Sammlung (Jes 56-66) redaktionsgeschichtlich untersucht* (BZAW 175; Berlin/NewYork: Walter de Gruyter, 1989).
- Steck, O. H., "Aspekte des Gottesknechts in Deuterojesaja 'Ebed=Jahwe=Liedern'", *ZAW* 96 (1984), 372-390.
- \_\_\_\_\_, "Aspekte des Gottesknechts in Jes 52,13-53,12", *ZAW* 97 (1985), 36-58.
- \_\_\_\_\_, *Studien zu Tritojesaja* (BZAW 203;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1).
- Werner, G., *Deuterojesaja* (Calwer Bibelkommentare; Stuttgart: Calwer verl., 1990).

## 검색어

출 19장 6절

제사장의 왕국

야훼의 종의 노래

사 61장 6절

야훼의 제사장

세계를/열방을 섬기는 민족

스룹바벨의 제거

기원전 486년

# A Calling for Serving“ the Others” and the Gentiles, and Formation of Such an Identity - Implications and ‘Sitz im Leben’ of a Kingdom of Priests, the Servants of Yahweh, and Yahweh’s Priests

Dong-Gu Han,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ungTaek University

In this study I trace the texts that present a thought unique to the history of Israel, that is, the calling and identity of serving“ the others” and the Gentiles. The texts are Exodus 19:3-8, to which Exodus 19:6 ("a kingdom of priests") belongs, and Exodus 24:3-8, Isaiah 42:1-4, 49:1-6, 50:4-9, and 52:13-53:12, which are ‘the songs of Yahweh’s servant’ in the second Book of Isaiah, and Isaiah 61 ("the priests of Yahweh" and

[www.kci.go.kr](http://www.kci.go.kr)

"the ministers of Yahweh").

First, I organize the mentions that are made of “the others” and the Gentiles in these texts, and provide their theological messages. Furthermore, I explore the texts in terms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so that the traditional ‘Sitz im Leben’ that formed such a theological thought can be defined. I try to find the ‘Sitz im Leben’ of the historical factor that brought about the new insight by piecing these relative chronologies together.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which historical motive helped form such a thought, knowing that, in their history of suffering, a history in which they exhausted themselves searching for a way to survive, it was not an easy road, but rather a path that required a great resolution for Israel to care for and serve “the others.”

Each of the three texts examined in this study was formed by different authors (or editors), but they all see a way for Israel to survive in the light of relationship with the nations of the world, and find the reason for their existence especially in a path of serving the nations of the world, and thus set the identity of the Israelites as “Yahweh’s priests who serve the nations of the world.” The event that brought about such a transition was the removal of Zerubbabel from Persia in 486 B. C., which thwarted the hope of David’s family for the Messiah to appear in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second temple community. At that time the event caused a socio-political change in the history of Israel. Owing to this event, their political Messianic movement was transformed into an ideological Messianic one, and they even came to define their calling and identity as the people who serve the nations of the world.

## **Keywords**

Exodus 19:6

a kingdom of priests

songs of Yahweh's servant

Isaiah 61:6

Yahweh's priests

the people serving the nations of the world

the removal of Zerubbabel

B. C. 486

- 투고일: 2016년 6월 20일
- 심사일: 2016년 8월 3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8월 8일

[www.kci.go.kr](http://www.kci.go.kr)